

지역 소식통

정읍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예산 전액 반납 결정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올해 공무 국외 출장예산 6천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읍시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공무 국외 출장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쌀값 폭락 및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실질소득이 줄어 전전공공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쳐 나가기 위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부안군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제33회 부안군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 소식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발행 규모와 합인율을 축소하거나 발행 자체가 아예 중단 예정인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한 상황으로, 또 다시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져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부안군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정읍시, 구입비 81억 6000만원 상당... 농가 경영비 절감 '기대'

정읍시가 농지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무기질비료 가격상승으로 비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 3일 이후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한 무기질비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격 인상분의 80%는 국가·도·시·농협이 각각 분담하며 농업인은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 없이 평소 이용하는 농협을 방문하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된 무기질비료를 올해 평균 가격상승분의 80% 사전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농업인별 지원 물량은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와 하천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최근 3개년 평

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한정된다. 시 전체 지원 물량은 약 14,062톤이며, 금액은 81억6천만원(시비 11억4천만원) 상당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으로 지역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기질비료란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공급(판매)되는 비료를 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내장야영장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캠프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1박 2일 자녀와 함께 '가족 캠프'

정읍시, 총 15가족 50여명 참가... 가족 간 정서적 소통·이해 기회

정읍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내장야영장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캠프'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가족 간 정서적 소통과 이해를 통해 조화로운 가족 분위기를 형성하고, 일상에 지친 부모와 자녀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캠프 참가자들의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캠프에는 조형하고 이하 자녀를 둔 15가족 50여 명이 참여해 가족 간 협동심과 정서적 교감을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하는 △자연 속 놀이를 통한 힐링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내장산 생태 탐방 프로그램 △정읍전문연구회의 별자리 이야기 체험 △슬라막에서 야외 취침 △미니 명랑운동회 △천사 하이로드 및 태산선 비문화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가한 가족들은 "평소 바쁜 일상에 아이들과 마주 보고 이야기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자녀와 소통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담대한 도전! 부안 대도약 시대 개막!'

민선8기 대도약 신규시책

2024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

부안군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민선8기 대도약 신규시책·2024년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갖고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에 집중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정 및 지속가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한달여 동안 각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시책 및 국가예산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실현가능성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군정 목표를 구체화하는 팀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도약 신규시책을 △관광산업 육성과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 도약 △부안형 수소산업 집적화와 일자리 창출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과 농가 소득 증대 △새만금 개발 선제적 대응과 새만금 중심도시 도약 등 분야별로 332건 발굴했다.



부안군은 발굴된 다양한 시책을 바탕으로 민선8기 서해안 중심도시 부안 실현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군은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수요예산과 적정성과 추진계획 등을 추가 검토해 타당성이 높은 시책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24년 정

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련 부안군수는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번이 발굴된 대도약 신규시책들이 부안이 미래 백년을 위한 대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기업투자 유치 지원제도 안내 서한문·홍보물 발송

삼덕읍 고창군수가 4일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의지와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300여개사에 군수 서한문과 홍보물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자동차·반도체 부품산업 등 첨단 미래산업과 친환경 ESG기업 유치를 위한 고창군의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 또 유치업종 변경 등 적극적인 기업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창야생농업단지, 남고창 IC와 직

접 연결돼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을 통한 원활한 물류수송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기업환경을 위한 전선지중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했고, 전국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로 인근지역에 비해 분양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더해 고창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교민 강호항공고교와 영선고교를 통해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 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홍보물에는 고창군의 차별화된 투자환경과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고창군 투자가이드북'과 함께 고창을 떠난 출향인들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문'도 동봉했다.

삼덕읍 고창군수는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크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친환경 ESG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에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성 기자

고창군, 제61회 군민의날·41회 체육대회 열려

고창군민들의 화합의 한마당인 제61회 고창군민의 날과 제41회 고창군민체육대회 가 성대하게 열렸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군민의 날' 기념식과 '군민체육대회'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과 고창군의회 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김갑기·김성수 도의원, 재외군민을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과 선수 및 임원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내고장 물품 팔아주기에 앞장 서고 있는 재경군민회(회장 김광중), 재경군민회(회장 이익희), 재광군민회(회장 김기동) 등 200여명의 재외군민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시전행사로 국악 민요단과 영선놀이패 농악공연 등이 열렸고, 축구, 족구, 단체줄넘기,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의 체육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고창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군민의 장을 수상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익장 영택영, 산업근로장 박형남, 애향장 박종연, 효행장 홍종팔씨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또 김용봉 신부(서울시흥동성당)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도 진행됐다. 김신부는 공음면 천주교 개갑성지 성역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다. 과거 서초동성당 주임신부 재임 당시 성당신자 1000여명과 함께 개갑성지를 방문해 고창성당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서초동 성당의 지원을 받아 2억원으로 2000여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삼덕읍 고창군수는 "군민의 날과 '군민체육대회'를 계기로 결집된 열정을 발휘해 군민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